

마다가스카르 최성수-이경희 선교사 이야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 요한복음 13장 34~35절 -





[직업 교육]

- 마다는 직업군이 다양하지 않고, 아이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직업은 장사꾼, 건설 노동자, 빨래 하는 직업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서 하고 싶은 일도 그 정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직업을 알려주고자 5주에 한 번씩 다양한 직업군에 속해 있는 분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지 아이들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아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가정방문]

3월 한 주간의 짧은 방학을 이용해서 5학년 아이들 가정방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냥 밝고 장난끼 많은 딱 5학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정을 방문해 보니 그래도 안정된 가정에서 밥 걱정 없이 자라고 있는 아이들은 다섯 손가락에 들 정도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대부분 끼니를 거르는 일이 대수롭지 않아 보였고, 특히 몇 가정은 심각하게 어려웠습니다.

앉을 자리도 없는 집에서 서서 가정방문을 하고 기도를 하고 시편의 말씀을 복사해서 나누고 작은 세제를 선물로 나누며 우리는 이들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록 이들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이 되었고, 하루 하루 밤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바꿔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무거운 삶의 무게가 저희에게도 무겁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와 그들의 눈물에 어깨를 내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뿐이었지만, 그들은 더 밝은 웃음으로 우리를 맞아 주었고 우리의 방문이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된 듯하여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별이 되어준 현지 기업 "STAR"]

아이들의 급식을 준비하며 마다 사람이면 누구나 알 만한 여러 기업들에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기업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음료수를 판매하는 기업인 "STAR"였고, 올해가 "STAR" 70주년이 되는 해인데,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아이들 급식에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당일 날 STAR직원 한 분이 아이들에게 짧은 인사말과 힘들어도 공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당부와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아이들 얼굴에 별보다 더 밝고 꽃보다 더 환한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이 아이들이 언젠가는 마다를 환히 비추는 진짜 "STAR"가 되기를 기도해봅니다.



[하나님의 선물]



- 하인구는 우리와 함께 학교 사역을 하는 스태프입니다.

하인구는 동생들과 수녀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하인구가 이제는 어른이 되어서 군인인 약혼자와 고아가 된 한 아이의 부모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제 27살인 하인구가 11살 남자아이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도는 아이 때문에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학교로 전학을 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한 집에 가보니 살림살이도 없고 그냥 찬 바닥에서 다 꺼진 매트리스를 깔고 살고 있었습니다.

찬 바닥에 꺼진 매트리스가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침대 2개에, 매트리스 2개까지 생각하니 가격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하나님, 만약 갑자기 저희가 예상치 못한 현금이 들어오면 그건 하인구 침대 해주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 다음날 예상치도 못한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빨리.. 하나님도 그 순간을 기다리셨나봅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인구를 위해 준비해주신 선물이고, 칭찬이고 고마움의 표현이신 듯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였기에..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했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기도제목

**** 언제나 마다가스카르와 저희 부부를 기억하며 기도와 물질로 동역 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부부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2. 함께 동역하는 교장 선생님과 스텝들과 학부모들과 아름답게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3. 5월부터 시작되는 아이들 급식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히 성장하기를
4. 지속적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마다 현지 기업을 만날수 있기를
5. 계속 진행되는 가정방문을 통해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연락처****

이경희선교사-카톡ID: **tsaramada**

최성수선교사-카톡ID: **drewschoi2**

바울선교회 www.bauri.org/ Tel. 063-254-8418